

부유층 자녀들, 성적 위조해 미 명문대 합격

한국 부유층 자녀들이 가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 명문대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입시 브로커가 개입해 미국 대학 관계자에게 수억 원의 빚돈을 건네려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할리우드 스타 등 부유층이 유명 사립대에 거액을 주고 자녀를 입학시켜 논란이 된 이른바 '미국판 스카이크슬'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한국 학생들이 성적을 위조해 미국 명문대에 합격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적을 위조해 미국 명문대에 진학한 부유층 자녀들이 적발됐다. 사진=타운뉴스 DB

로 조작해 컬럼비아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앞서 유출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를 한 학생에게 주며 답을 외우게 하고, 대학 입학 에세이(자기소개서)를 대필하기도 했다.

정 씨가 미국 대학 관계자를 매수하려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 씨는 "기업입학제로 합격한 것이어서 대학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며 학부모에게 적게는 1억5천만 원에서 많게는 9억여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한국 학생들을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킨 혐의(사기, 업무방해)로 정 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이달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 씨 등은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 아들 등 최소 3명을 2016~2017년 위조한 고교 성적증명서를 이용해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등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학생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한국에서 과학교에서 3년 동안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것으로

2016년 정 씨에게 동업 제안을 받았다는 한 SAT학원 원장은 "(정 씨가) 대학 입학사정관 등에게 돈을 줘서 합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별로 구체적인 금액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부모에게 받은 돈을 실제로 대학에 뇌물로 줬을 가능성과 학부모를 속이고 동료 브로커들과 나눠 가졌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정 씨는 2014년계부터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며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중소기업 오너 자녀의 미국 대학 입시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반려동물 수입 급증

올해 들어 중국산 반려동물(개·고양이) 수입이 크게 늘어나 애완용으로 팔려나갔다.

14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였던 중국산 반려동물 수입이 올해 8월 말까지 8,493마리가 수입돼 애완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지난해 614마리에서 올해 8월까지 1,364마리로 2배 이상 수입됐으며 반려견의 수입은 4,342마리에서 7,129마리로 64%나 증가했다.

반면 중국산 반려동물의 평균 수입 신고 가격은 크

게 줄었다. 2017년 마리당 평균 797달러였던 수입 가격은 감소해 올해는 마리당 평균 124달러를 기록했으며, 반려견의 경우 지난해 312달러에서 올해는 142달러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처럼 증가하는 수입 현황에 비해 사육 환경과 번식 과정 등이 불분명한 수입 동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아 값싼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 강아지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등 분양 사기 개연성도 높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반려동물 이력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올해 주식 투자"

한국의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올해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기업정보업체 '사람인'은 이날 직장인 1,535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해 조사한 결과 67.2%가 "올해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주식을 시작한지 6개월이 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6개월 이내(4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이상' (26.9%), '1년' (18.3%), '2년' (8.2%) 순이었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500만원 미만' (46.2%)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7.2%),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1.5%),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6.2%),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4.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투자했다는 응답자도 4.5%였다.

주식 투자 이유 1위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인 것 같아서' (46.4%, 복수 응답)였다. '저금리 상황에서 대안투자책으로' (43.3%),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41.7%), '부동산 등 다른 채테크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서' (25.3%),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돼서' (18.8%),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18.7%) 등 이유도 이어졌다.

주식 투자를 한 직장인의 과반(51%)은 '수익을 냈다'고 답했으며, '원금 보전' (26.4%)과 '손실을 봤다' (22.6%)는 응답의 비율은 비슷했다. 수익을 낸 응답자의 수익률의 경우는 평균 25%로, 기대하는 연간 목표 수익률 평균인 29%보다 다소 낮았다. 손실을 본 이들은 평균 -28%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견딜 수 있는 손실은 원금의 평균 19% 수준이라고 답해 기대 손실보다 실제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에 가까운 48.1%는 앞으로도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라 답했다. '지급수준을 유지'가 42.3%였으며 '투자 비중을 낮춘다'고 응답한 사람은 9.5%에 불과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복선)/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